社會淨化운동의 理念과 方向

○…續社會教育을 통한 精神改革運動의 마…○
○…지막 착안사항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
○…은 傳統文化의 창조적 발전을 겨냥하…○
○…는 건전한 文化藝術活動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다.…○

淨化特輯

대중매체가 외국의 유명한 교향악단이나 발레단을 초청하기에 앞서 국내 교향악단과 발레단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關係政府기관은 이를 적극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텔레비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인기 프로그램도 의미없는 익살이나 서민생활의 묘사 또는 인기 연애인의 얼굴로 장식하지 말고 무언가 民族精神史의 큰 줄기와 現代社會가 요구하는 사상적 맥락속에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서구문화의 홍수속에서 자라난 새로운 世代들은 우리 文化의 참된 줄기가 무엇인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우리 民族文化의 우수성과 독특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文化의 創造的 發展노력이 젊은 세대들에 의하여 繼承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傳統文化의 창조적 발전노력이 너무나 復古的이고 非合理的인 傳統을 강조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가정、학교、직장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社會淨化教育의 方向을 살펴보았다。교육은 정신혁명을 목표로한 社會淨化運動의 핵심적인 활동이다。우리는 앞에서 교육은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문제이며、따라서 지난날 교육이 잘못된 책임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이제 우리는 國民精神改革을 위하여 각계각층이 협동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教育者의 양성에서부터、교재의 발전、각급 조직의 체제발전에 이르기까지 중점적이고 획기적인 노력이 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第5章 社會改革運動의 歷史的 考察

제 5 장

오늘날의 社會淨化運動에 유사한 社會改革 또는 精神改革 運動은 그 歷史를 소급해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퍽 오래전부터 그 時代的 要請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여기서 그와 같은 운동들을 고찰하는 데에는 두가지 주요한 目的이 있는 바、그 하나는 우리가 社會淨化運動을 추진함에 있어서 歷史的 背景을 살펴봄으로써 民族的 傳統의 創造的 계승이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運動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다른 하나는 지난날의 國民運動을 냉철하게 평가함으로써 社會淨化運動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試行錯誤를 방지하고 나아가서 보다 큰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우리 歷史上에 나타난 다양한 社會改革 또는 精神改革 運動을 상세히 고찰한다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李朝時代의 鄕約運動、日帝下의 民族更生運動、解放以後의 協同組合運動과 4-H크럽運動、60年代 以後의 再建國民運動과 學生鄕土啓蒙運動、그리고 70年代의 새마을운동 等을 순서대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鄕約運動

鄕約이 우리 歷史上 최초로 나타난 것은 1515년 즉 李朝中宗때였으며、당초의 특징으로는 당시의 지식인들인 儒生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룩된 政治、道德、文藝的인 組織體로서 자치적인 協同體였다。「鄕」이란 地域社會(community)를 말하며、「約」이란 지역사회에서의 단결、친목、발전을 위한 守則(regulations) 또는 規約을 일컫는 것이었다。約은 사회의 醇化、德化、教導 및 상호협조를 위한 지역주민의 自治努力으로 地域社會淨化運動의 嚆矢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鄕約運動의 모체로서 李退溪先生의「禮安鄕約」이 안동지방에서 그리고 李栗谷先生의「西原鄕約」이 청주 지방에서 실시되어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외에도 韓章錫의 關北鄕約、金弘得의 報恩鄕約 等 향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鄕約規範의 내용은 德業相勸、禮俗相交、過失相規、患難相恤의 네가지로 大別할 수 있는데 德業相勸이란 긍정적인 규범을 서로간에 장려한다는 것으로 당시 강조된 道德規範은 부모에게 효도하고、나라에 충성하며、동료간에 서로 友愛하며、웟사람을 존경하고、남녀간에 예절을 지킴으로써 각자의 言行이 바르고 믿을 수 있으며、同族이 화목하고、이웃간에 친절하며、염치를 알고 自記業務에 충실하고、약속을 지킬줄 알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過失相規란 그 고을 사람들 중에서 鄕約을 위반하여 不美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웃간에 警戒하고 忠告하며、크게 범하는 사람은 規約에 의하여 벌하는 것이다。

禮俗相交란 그 지역 사람들 상호간에 新年人事를 교환하고 冠婚喪祭를 맞이하여 서로 돕고、노인을 공경하는 등 좋은 예절을 권장하는 것이다。

患難相恤은 水害、火災、盜難 등의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상부상조하고、병든 사람을 위로하고、의지할 곳없는 고아나 노인들을 扶養하며、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鄕約規約의 내용은 勸善懲惡과 상부상조의 생활을 서로가 권장한 것으로서 초기의 鄕約運動은 곧 도덕적 정신적인 협동과 봉사의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後代에 와서는 더욱 발전되어 風俗改善과 산업장려 및 公共奉仕條項이 가미되었다。참고로 栗谷의 鄕約을 보면 中國傳來의 呂氏 및 朱子의 鄕約에 첨가하여 ①納税 및 貧役의 의무、②犯罪豫防 ③法令의 遵守、④官公吏의 횡포감시、⑤절도의 적발 및 단속、⑥浮浪者의 단속 등 오늘날 우리가 본받을 바가 많다고 본다。이와 같이 地域社會 單位로 德을 권장하고 惡을 경계하며 이웃간에 예절을 지키고 서로 돕는 훌륭한 傳統이 지난 400年間 우리의 社會倫理의 바탕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日帝下의 民族更生運動

開港(1876) 以後 한국은 국제정세에 익숙해진 이웃 日本에 의해 帝國主義的 침략이라는 끈질긴 도전을 받아왔으며 1897年 大韓帝國의 성립과 동시에 光武改革期를 맞이하여 社會改革과 精神改革運動을 시도하였으나 1905年末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이 운동은 저지되고 사실상 국권은 상실당하였다。국난극복의 근대적 양상인 東學革命에서 보여주기 시작한 민중적 차원에서의 구국적 열의와 끈기가 응어리져서 1910年 國難이후 義兵戰爭、民權運動、愛國啓蒙運動이 1919년의 3·1運動으로 나타난 것이다。(계속)

행락 無秩序 단속

淨化委 4월계몽후 5월부터

정부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아직도 남아있는 교통·거리질서 행락질서 경기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올해 질서확립대책을 마련、범국민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0일 사회정화위원회가 사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올해 질서확립대책에 따르면 내무 건설 교통 보사 문공 체육부와 서울시및 치안본부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질서저해요소를 제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아래 4월 한달동안은 계도활동을 펴고 5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질서확립을 위한 분야별 역점과제는 거리·교통질서의 경우 바로운전하기、바로걷기등이며 행락질서는 쓰레기 스스로 치우기、바가지요금없애기、경기장질서는 소란안피우기、휴지오물 안버리기 등이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질서의식을 높이기위해 13개시·도및 46개 시단위로 구성되어있는 지역별 질서확립협의회를 활성화、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시·도단위로 월1회 실시되는 시민 자율질서의 날도 보다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栽培教室 (連載)

新規會員을 爲하여

용담 ＝ (龍膽) ＝

效用＝苦味健胃藥으로 消化不良、食慾不振에 쓰임。

1、性狀

龍膽科에 속하는 多年本이다。우리나라의 山野의 나무밑에 널리 자생하고 있다。草長은 30∼60cm정도이며 잎은 對生의 卵狀披針形으로 3줄의 平行脈이 현저하다。가을에 포기 끝에 또는 上部의 葉腋에 清楚한 파란 종모양의 꽃이 피고 果實은 紡錘形의 果이며 種子는 微細하다。

근래에는 觀賞價를 높이 인정하여 花卉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2、栽培法

1、栽培適地

우리나라 各地에 自然分布되어 있어 각지에서 재배할 수 있으며 土質은 適濕한 粘質壤土、埴質壤土가 적합하지만 山野의 開墾地、濕礫質土에서도 잘 재배된다。

2、繁殖

번식은 實生法과 分株法으로 할 수 있다。

㉮實生法＝育苗 移植할 수 있는데 9월하순∼10월 중순경에 채종한 것을 苗床을 만들어 바로 뿌리도록 한다。

이 종자는 過乾하거나 오래두면 發芽力을 상실하게 된다。

播種床은 120∼150cm의 두둑을 짓고 12∼15cm간격으로 잔골을 쳐서 條播한 다음 細砂를 덮고 그 위에 짚으로 被覆한다。

苗床은 될 수 있으면 半陰地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苗床을 만들 때 잘 썩은 堆肥와 草木灰를 약간 基肥로 사용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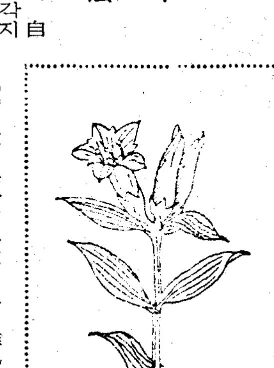
㉯分株法＝實生法으로 육성한 母株나 山野에서 자생한 母株에서 分株할 수 있는데 이때는 건실한 눈이 2∼3개 붙도록 해서 根部와 함께 나누어 심는 방법이다。分株는 늦은 가을과 봄에 할 수 있다。

3、定植 및 管理

本圃에 定植하고자 할 때는 늦은 가을 또는 이른 봄에 起耕하여 整地한 다음 基肥로서 堆肥1、200kg、過石200kg、草木灰30kg를 넣고 이랑사이 30cm로 골을 타고 포기사이 15cm간격으로 한 개씩 심는다。

活着하여 발육하게 되면 1∼2회 追肥를 주고 中耕除草를 한다。

여름에 한발(旱魃)이 심하면 生草를 깔아주어도 된다。그리고 간혹 진딧물이 피해를 주는데 적당히 殺蟲劑를 뿌려 방제에 힘쓸 것이다。



3、收穫·調製

늦가을에 莖葉이 萎凋하면 뿌리를 캐어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극히 가는 뿌리는 제거하고 햇볕에 건조시킨다。

충분히 건조되면 粉末로 조제할 수 있으나 보통은 그대로 건조시킨다。보통 10a당 收穫量은 乾材로 120∼150kg정도이지만、2∼3년의 뿌리는 350∼400kg정도이다。노력에 따라 약간의 收量을 더 올릴 수도 있다。

自然生 採取 (연재)

갈근 ＝ (葛根) ＝

1、과 명＝콩과(荳科)

2、속 명＝칡뿌리

3、약용부＝뿌리

1、기본＝산과 들에 스스로 [illegible]는 다년생 덩굴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이 자라고 있다。칡덩굴에서는 섬유를 뽑아 갈포벽지를 만들고 그 무성한 잎은 가축의 사료로 쓰고 또 뿌리는 약용으로 쓰는 동시에 전분을 뽑아 식용으로하고 또는 생으로도 즐겨 먹는다。

2、생장적지＝우리나라 전역 어떠한 토질에도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3、특징＝덩굴은 굵으며 길게 뻗어나가는 성질의 것으로서 산언덕이나 골짜기의 산면에 퍼지면서 뭇나무에 매어 달려 자라기를 좋아한다。또 덩굴은 겨울이 되면 잎만 떨어졌다가 봄에 다시 자라 펴진다。잎은 셋의 작은 잎과 긴 잎줄기로 되어 있고 그 잎에 갈색의 거친털이 달려있고 잎 뒤쪽은 흰빛이다。

꽃은 작은 나비모양의 홍자색 꽃이 피고

※右側 8단에 계속

※續 自然生

그 꽃이 진후에는 평평한 꼬투리가 달리며 거기에는 거친털이 많이 달려있다。꼬투리가 익으면 흑갈색의 윤기가 있는 씨앗이 나온다。

뿌리는 땅속 깊이 자라며 굵다。

4、채종＝겨울에 열매에서 종자를 채취한다。

5、파종＝유기질 토질로서 자갈섞인 곳에 파종하면 뿌리가 굵어지므로 수확이 많다。

6、채취＝12월부터 1월에 걸쳐 캐되 가급적 굵고 오래된 뿌리만을 골라 캐어야 한다。

7、조제＝캐낸 뿌리는 물에 씻어서 말리기 위하여 겉껍질을 벗기고 세로로 넓게 자르거나 모나게 5mm정도로 잘라서 햇볕에 말린다。넓게 잘라 말린것은 방좌갈근이라고 한다。

8、이용＝방한 청량 해열 건위 진경약으로 사용한다。

藥草(種子.種苗.種根)販賣 알선案內

協會 本部에서는 83年 4月以後 種子類 販賣알선 業務를 直營으로 취급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全國 栽培會員 諸賢과 栽培에 뜻을 두고 계시는 분은 事前에 當 協會 本部를 直接 來訪 또는 電通및 書面으로 相談하신 然後 栽培에 臨하실것을 當付드립니다.

아울러 봄,가을 播種期에 栽植을 願하시는 분은 何時라도 當協會 種苗部를 活用하여 주시기 바라며,더욱 必要하신 種子類를 注文해주신다면 最善을 다하여 믿을수있는 物品을 選定 알선해 드리겠읍니다.

☎ 直 通 967—8133
共販場 967—9807·965—5895

1984. 4. 1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種苗部